

# Experience Report (파견결과보고서)

성명	박세연	학과(전공)	신소재공학과
파견대학	동경공대	파견(참여)기간	2022.10.01-2023.01.31
파견 프로그램명	Campus Asia T2KN		

## 1. 출국 전 준비사항

### A. 프로그램 지원과정

- 학교 이메일로 전달된 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.

### B.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

- 동경공대 측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나, 정보 전달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.

### C. 비자 신청 (비자 유무, 신청방법, 소요기간, 경비)

- 학생 비자 필요, 신청 대행사 (여행사) 통해 신청, 3-4주 소요, 5만원 가량 → 대행사 일처리가 미숙하였습니다.

### D. 항공권 구입 및 비용

- ANA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85만원 가량 지출하였습니다.

### E.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

- 캐롯 여행보험으로 가입하였으며 15만원 가량 지불하였습니다.

### F. 수강신청 (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) / 연구실 배정 (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)

- 동경공대 Chemical Science,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학과 홈페이지에서 관심 교수님 검색하였습니다.

## 2. 학업 관련 (A. 강의수강과 B.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)

A. 강의 수강 (수업 환경, 수업 내용, 수업 방식, 과제, 시험, 강의 평가 등) - 자세히 기재해주세요

B. 연구 참여 (연구 환경, 연구 주제, 연구 방식, 연구 결과 등) - 자세히 기재해주세요

- 연구 주제는 단기간 내에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가 설정하였으며 카이스트, 동경공대 교수님의 확인을 받았습니다.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신생 연구실이고 일본의 특성상 한국보다 장비 측

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는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. 시간적,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가 설정한 가설의 간략한 검증 정도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. 총 두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에서 다른 연구실의 협업 연구자들과 함께 추가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C. 학점 인정 (해당될 경우)

### 3. 비용

A. 기숙사 (숙박)

- 동경공대에서 숙소 제공

B. 식사

- 모두 밖에서 사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중식/석식 총합 최소 2500엔 이상 소요

C. 기타 생활비

- 그 외 여가 비용 (여행, 음식, 쇼핑 등)에 사비 활용

### 4. 학교 캠퍼스

A.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

- 학교는 크지 않고 카이스트 분위기와 비슷하며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.

B. 주변환경 및 분위기

- 조용한 동네여서 주변에 크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.

C. 그 외 사항

### 5. 언어 사용

- 교수님, 연구실의 외국인 (스웨덴/중국) 학생, 몇몇 일본 학생들과는 영어를 사용하였고, 여유 시간에 일본어를 한마디라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.

### 6. 기숙사/숙소 이용(입실/퇴실 시기, 주의사항 등)

- 일본 도착 당일부터, 출국 당일까지 사용 가능했습니다. 숙소는 share house 형태였는데 좋은 점도 단 안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. 위치, 시설 등에서 부족하였고 소유 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

### 7. 학교 생활

-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작은 변화가 혹은 시내와 가까워 충분히 리프레시할 수 있었습니다.

## **8.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&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**

- 동경공대 측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나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았습니다. 또, 관심도와 비례하여 슬랙으로 많은 메시지가 왔으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았고 반복된 공지와 일처리로 연구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.

## **9. 동아리 등 교내·외 활동**

## **10. 여행 등 개인 활동**

- 주말에 시간내어 여행도 다니고 시내에 나가 여가 시간을 즐겼습니다. 일본 음식이 입에 맞아 적당한 가격대의 음식부터 고급 음식까지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.

## **11.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**

## **12. 파견 소감**

- 아시아권 상위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, 연차가 좀 더 낮았거나 카이스트 학부생이었으면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같은 CAMPUS Asia 프로그램 내 NTU에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. 최상위권 아시아 국가인 일본, 싱가포르에서 공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을 갈 시간적 여유가 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

## **13. 사진 첨부**